

“휴가철, 땅끝해남으로 캠핑떠나요”

오시아노 오토리조트 등 4곳 인기 가족 단위·반려동물 여행객 북적 낚시·갯벌체험·치유의 숲 ‘다채’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캠핑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남 곳곳에 조성된 캠핑장에 여름 휴가철을 맞은 여행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해남군에 따르면 땅끝마을 송호해수욕장에 위치한 오토캠핑장에는 땅끝마을 관광을 겸한 가족단위 캠핑객들이 줄을 잇고 있다.

아늑한 해수욕장에 서남해 바다를 조망하고 있는 오토캠핑장은 아름다운 전경과 최상의 부대 시설로 캠핑족들 사이에서 일찌감치 입소문이 난 캠핑 명소다.

오토캠핑 사이트 50면, 카라반 18대가 구비돼 있다. 캠핑장은 취사장과 샤워장, 바비큐장 등이 넓게 조성돼 있고, 송호해수욕장과도 바로 연결된다.

특히 리조트내에 조성된 18동의 카라반은 편리한 시설과 캠핑카에서 하룻밤을 보낸다는 이색체험으로 일년내내 이용객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카라반에는 부대 시설이 모두 조성돼 있어 캠핑 장비를 가지고 오지 않아도 야영을 즐길 수 있다.

송호리 해수욕장 인근의 땅끝항토나라테마촌도 오토캠핑리조트로 사랑받는 곳이다.

차량을 정박해 사용할 수 있는 오토캠핑존 26면과 소나무 숲속에 자리잡은 숲속캠핑존 30면이 조성돼 있다.

또한 천연잔디구장과 넓은 수변 생태공원을



아름다운 전경과 최상의 부대시설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 땅끝해남 오토캠핑장에서 가족들이 카라반 캠핑을 즐기고 있다. /해남군 제공

비롯해 황도문화체험관 등 편의공간과 휴식공간도 두루 갖추고 있어 가족단위 캠핑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앞바다에 나가 물론 낚시, 갯벌 체험 등도 할 수 있고, 송호해수욕장에서 5분 거리다.

8월 말에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썸지락 캠핑이 열릴 예정으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관광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산림 휴양시설로 각광받고 있는 흑석산 자연휴양림 야영시설도 인기다.

흑석산 자연휴양림은 조용한 숲속에 들어앉은 숲속의 집 숙박시설이 유명하지만 야영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 조용한 여행을 즐기고 싶어 하는 캠핑족들이 즐겨 찾고 있다.

데크 시설 1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문을 연 50ha 규모 치유의 숲 등을 여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오시아노 오토캠핑리조트는 요즘 가장 핫한 캠핑장으로 꼽힌다.

오시아노 관광단지 일원은 서남해의 보석이라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해변도로와 180도 조망이 가능한 낙조 등으로 유명하다. 한국관광공사의 관광단지 조성을 통한 기반 조성 등 부대 시설이 다양하게 갖춰져 있고, 도시권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가족단위 캠핑족들로 늘 북적이는 곳이다.

해변을 인접해 200여 면에 이르는 오토캠핑 시설과 함께 레저체험장, 바다분수, 잔디광장 등이 조성돼 있어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완비됐다.

해남군 관계자는 “여름 성수기에는 해남의 해수욕장, 캠핑장 등을 찾아 다채로운 이벤트와 함께 물놀이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박병태 기자

무안서 대한항공배 전국대학배구 18일부터 열린다

20개팀 500명 기량 겨뤄

무안군은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무안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2022 대한항공배 전국대학배구 무안대회가 개최된다고 14일 밝혔다.

한국대학배구연맹이 주최하고 무안군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전국남자대학교 15개팀과 여자대학교 5개팀 등 20개팀 500여명의 선수들이 참여해 기량을 겨룬다.

대회는 남자대학부 A그룹과 B그룹, 여자부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남자대학부 A그룹은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 경기대, 명지대, 경상국립대, 인하대, 조선대, 중부대, 충남대, 홍익대 등 11개 팀으로 편성됐다. 남자대학부 B그룹은 구미대, 목포대, 우석대, 호남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됐고 여자부에는 경일대, 단국대, 목포과학대, 우석대, 호남대 등 5개 팀이 출전한다.

준결승전은 오는 25일, 결승전은 오는 26일에 열리며 준결승과 결승 경기는 JTBC에서 중계한다. 군은 경기장 시설점검 등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무안=박주현 기자

여수,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확대

여수시가 최근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하고 지원 확대에 나섰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은 농가의 유통비용 절감과 지역 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해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의 50%를 지원해준다.

여수시는 올해 사업비로 2억 원을 확보해 개인농가에는 최대 100만 원, 생산자단체에

는 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여수시에 따르면 시행지침 개정으로 농업법인 등 단체가 GAP 및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지 않아도 택배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또한 가공농산물의 경우 사업신청 농가가 직접 생산한 원재료로 한정했으나 생산자단체는 여수에서 생산한 일반농산물을 매입, 가공했을 경우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여수=곽재영 기자



구례군이 LH와 함께 패키지형 귀농·귀촌 주택 개발리츠 사업 기공식을 최근 개최했다. /구례군 제공

나주-대상중공업(주)·(주)진트, 혁신산단 투자협약

민선 8기 출범 후 제1호 체결

나주시가 민선8기 출범 후 운병대 시장이 제1호 문서로 체결했던 2개 벤처기업 투자유치 협약 계획을 성사시키며 에너지산업 선도 미래첨단 과학도시 기반 조성에 힘찬 뜻을 올렸다.

나주시는 최근 시 청사 이화실에서 대상중공업(주), (주)진트와 혁신산단 투자 유치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중공업(주)은 영업에 분사를 둔 선박 부품 제조업체로 최근 사업 다각화를 목표로 이차

전지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용 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혁신산단 부지 7,306㎡에 80억원을 투자해 내년 상반기까지 ‘EV·ESS 사용 후 배터리 재제조 공장’을 건립, 고용인력 40명을 창출하고 향후 나주 에너지국가산단 조성에 맞춰 사업 영역과 부지를 확장할 방침이다.

경기 수원에 본사를 둔 (주)진트는 농작업의 효율성을 더해줄 농기계용 자율주행키트 개발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는 정밀 농업 벤처기업으로 국·내외적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주)진트는 올 연말까지 혁신산단 8192㎡에 58억원을 투자하고 기계 스마트 장비 제조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4차산업 혁명 기술을 농업분야에 적용한 제품 개발·상용화 및 서비스를 구축하고 인력 37명을 고용한다는 목표다.

운병대 시장은 “첫 투자협약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기반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산·학·연·관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주=이재순 기자

구례, LH 귀농·귀촌주택단지 기공식

내년 9월 입주 목표

구례군은 LH가 패키지형 귀농·귀촌 주택 개발리츠 사업 기공식을 최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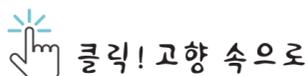
기공식에는 김순호 구례군수, LH 오영오 공정경영혁신본부장 등 사업관계자와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구례군과 LH가 지난 2019년 협약을 맺고 추진한 패키지형 귀농·귀촌 주택개발리츠 사업은 LH에서 수도권-지방 상생발전을 위해 수도권 주택분양사업과 지방권 귀농·귀촌 주택사업을

하나로 묶어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최초 사례로 선정된 구례군 귀농·귀촌 주택단지는 구례군 산동면 외산리에 위치하며, 총사업비 약 190억 원을 투입한다. 사업 부지는 2만5,127㎡로 주택 전용면적 74㎡, 26세대의 단독주택단지가 건립된다.

구례군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설치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지난 5월 대지조성사업 계획승인을 득하는 등 행정절차 이행을 마무리했다. 내년 1월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하고 9월에 주택을 완공해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구례=손석봉 기자



영암마트 삼호점, 소외계층에 라면 기탁

영암군 삼호읍은 최근 삼호읍 관계자 및 영암마트 삼호점 이은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나눔 실천을 위한 현물 기탁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기탁받은 물품은 라면 20상자로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 내 이웃들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은진 대표는 “작지만 지역 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영암마트 삼호점은 2013년부터 9년째 삼호읍 주민들을 위해 기탁물품을 전달하는 등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어 지역사회의 큰 귀감이 되고 있다. /영암=최복섭 기자



장흥정신건강복지센터, 마음돌봄사업 운영

장흥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6월부터 대덕읍 6개 마을 주민 150명을 대상으로 마음돌봄마을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센터는 지난 4월 대덕읍행정복지센터 및 6개 마을 이장님들과 협약식을 갖고 농번기를 피해 6월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오는 11월까지 총 9회기에 걸쳐 통합정신건강서

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울증 검사, 자살·중독 예방교육, 신체 건강 관리와 운동 프로그램 등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회기가 거듭될수록 참여 주민 수가 증가하고 있다. 마음이 힘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집단 프로그램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장흥=이옥현 기자



광양세관, 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업 방문

광양세관이 최근 광양항만 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업의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 파악을 위해 에이치에이엠(주)을 방문했다.

광양세관은 생산 공정을 둘러보고 관세행정상 애로사항에 대해 대화를 나눴으며, 수출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재식 광양세관장은 “기업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불합리한 제도나 절차가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업의 매출 증대와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관세행정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권동현 기자